

##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김 동 윤\*\*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김명식의 문학 세계 |
| II. 김명식의 생애와 문필 활동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제주도 출신인 송산(松山) 김명식(金明植; 1891-1943)은 조직 활동가이자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김명식의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항일운동가로서의 면모는 주로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다. 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핵심 구성원이었고,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 사회혁명당(社會革命黨), 고려공산당 국내지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했으며, 『동아일보』 논설기자, 『신생활』 주필 등을 역임하며 논객(論客)이자 문사(文士)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제주대학교발전기금 청봉학술연구기금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러나 그는 1923년 ‘신생활사 사건’으로 옥살이하는 것을 계기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별다른 조직 활동을 못하는 가운데 문필 활동만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 조선 역사, 세대, 교육, 여성, 주역, 종교, 문예 등 다양한 글을 발표했다. 그는 중일전쟁기에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여러 편 발표하면서 전향한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친일담론이 내면화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김명식의 문학으로는 『동아일보』 창간축시로 발표한 「새봄」·「비는 노래」(1920), 손병희의 별세에 즈음하여 연시조(聯時調)로 쓴 조시(弔詩)(1922), 「객중회추(客中懷秋)」(1916) 등의 한시, 「로서아의 산 문학」(1922)·「전쟁과 문학」(1938) 등의 평론, 「설낭당의 송(頌)」(1922) 등의 수필이 있다. 이 가운데 「새봄」은 자본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며, 조시는 1920년대 초반의 시조문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로서아의 산 문학」은 아직 카프(KAPF)가 결성되기 전의 시점에서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활성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사라는 점에서 김명식은 제주문학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명식, 사회주의자, 문사, 전향, 「새봄」, 「로서아의 산 문학」, 제주문학

## I. 머리말

송산(松山) 김명식(金明植)은 1891년 제주도에 태어나 1943년 작고할 때까지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동아일보 논설기자, 신

생활사 주필, 사회혁명당 간부, 재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활동가이자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그는 여러 지면에 수많은 글을 발표하며 필화와 논전의 중심에 섰던 논객(論客)이요 문사(文士)였다. 이러한 김명식의 생애와 활동은 이념적 논의가 비교적 자유로워진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생애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경우도 있고,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살핀 경우도 있으며, 문학적 활동을 다룬 경우도 있다.

김명식의 생애에 대해서는 허호준, 박종린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허호준<sup>1)</sup>은 김명식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언론인과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라는 데 초점을 두고서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을 전반적으로 조사·정리한 데 이어,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인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박종린<sup>2)</sup>은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김명식의 생애를 조명하였다. 하지만 생애와 관련된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활동만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는 최선웅, 홍종욱, 서영인 등이 조명한 바 있다. 최선웅<sup>3)</sup>은 1910년대 후반의 신아동맹당, 1920년대 초의 사회혁명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 등의 핵심 인물로서의 김명식의 면모를

- 
- 1) 허호준, 「시대를 앞서 산 언론인 김명식」, 『제주저널』 창간호,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 1993;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2005;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2) 박종린, 「꺼지지 않은 불꽃, 송산 김명식」, 『진보평론』 제2호, 1999; 박종린, 「김윤식 사회장 과동」,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2)』, 역사비평사, 2009.
  - 3) 최선웅, 「1915-1922년 사회혁명당 세력의 활동과 이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4; 최선웅, 「1910년대 제일유학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26호, 고려사학회, 2007.

구체적으로 밝혔다. 초창기 한국 사회주의 운동과 항일운동에서의 김명식의 역할과 위상이 그의 연구에서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반면에 홍종욱<sup>4)</sup>과 서영인<sup>5)</sup>의 경우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의 행적에 초점을 두어 전향한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주로 다루었다. 허호준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회주의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에 끼친 다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명식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전향한 친일 이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6)</sup>고 지적하였다.

문학 분야에서는 제주 현대문학의 초창기 문학인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김영화<sup>7)</sup>는 김명식의 문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시 <새봄>·<비는 노래>와 평론 <전쟁과 문학>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였다. 김병택<sup>8)</sup>의 경우 김명식의 이광수와의 논쟁을 상세하게 고찰하였지만, 그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문학>과 <새봄>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이처럼 문학인으로서의 김명식의 면모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만 조명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만 검토하거나 아직도 다루지 않은 관련 자료들이 많아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따라서 무엇보다 김명식에 대한 문헌조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가 발표한 논설·평론·시·한시 등의 글들과 이에 관련된 연구물 등을 수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4) 홍종욱,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5) 서영인, 「일제말기 전향자들의 시국인식과 문화론-김명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1집, 대구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008.
  - 6)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378쪽.
  - 7) 김영화,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80-86쪽.
  - 8)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46-48쪽;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43-68쪽.

이 연구는 김명식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데에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명식의 전반적인 삶과 활동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생애와 활동을 먼저 정리한 후 사상과 관련시키면서 문학세계를 분석한다면 김명식의 면모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

## II. 김명식의 생애와 문필 활동

김명식은 1891년 9월 26일<sup>9)</sup> 제주도의 신좌면(현재의 조천읍) 조천리 제16통 5호에서 김문주(金文株)와 송권숙(宋權淑)의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891년부터 1894년까지 정의현감을 지냈으며, 김해 김씨 조천이동파(朝天梨洞派)인 그의 집안은 조천지역에서 상당한 별문이었다.<sup>10)</sup>

김명식은 15살이던 1905년께 구좌면 김녕리 김희서와 결혼했다. 본처 김희서 외에 1919년 오인성과 혼인해 딸 수원을 얻었으나 이듬해에 오씨와 사별했다는 언급<sup>11)</sup>도 있고, 첩으로 송옥(宋玉)을 두었다는 기록<sup>12)</sup>도 있다. 자식에 관한 사항도 자료마다 다르다. 허호준은 아들 갑환·성환(모두 북에서 거주), 딸 순애(본처 태생)·순실과 수원(오씨가 낳은

9)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에는 1890년 9월 16일로 되어 있으나, 와세다대학 학적부에 명기된 ‘명치 24년(1891년) 9월 26일’을 따랐다. 『왜정시대인물사료』는 1927년 7월부터 1928년 2월 사이에 경성복심법원검사국에서 작성한 자료다(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11, 역사문제연구소, 2003, 143-177쪽 참조).

10) 김명식 생애의 일반적인 사실은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앞의 글, 375-402쪽과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375-418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11)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위의 글, 382쪽.

12)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이 자료에는 김명식의 본처 이름도 김씨서(金氏瑞)로 나와 있다.

딸) 등 2남 3녀를 거론하였고,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장남 갑순(甲順)’과 ‘장녀 정옥(貞玉)’만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1926년에 쓴 곽종원의 탐방 기사를 보면 “가족은 妻 宋氏(34) 외에 2子 3女가 있는데 長子 甲煥 君(13)은 舟橋公普에 통학중이며 次子는 昨年 5월에 낳는데 얼굴이며 氣質이 껍도 튼튼하다고 李君이 代言한다(女息들은 시골에 잇다고)”<sup>13)</sup>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인은 본처 김씨 외에 오씨(사별)와 송씨가 있었고, 자식으로는 2남 3녀를 두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다.

김명식은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sup>14)</sup> 1910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서울 유학길에 올라 1911년 4월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2년 반일 투쟁과 관련하여 퇴학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중학과(中學科)의 ‘교외생(校外生)’ 과정을 마친 후, 1915년 9월 13일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1918년 7월 5일 졸업하였다. 대학 생활 중 신병으로 1917년 12월 중순 귀향해 요양한 뒤 이듬해 4월 복학하기도 하였다.

김명식은 “1919년 蓬萊町에서 新亞商會를 설립하고 무역상을 영위”하다가 “1920년 1월 실패하여 폐업”<sup>15)</sup>한 적이 있긴 하지만, 주로 신문사·잡지사 등에 몸담으면서 조직활동과 문필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명식의 자신의 문필생활에 대해 “나의 文筆生活은 東亞日報時代 新生活時代 第2次東亞日報時代 朝鮮之光時代 無定處時代로 區分되었다”<sup>16)</sup>고 언급한 바 있다. 『동아일보』에는 논설반 기자로서 무기명 사설과 함께 기명의 글들도 발표하였고, 『신생활』에는 이사 겸 주필로 참여하면서 편집과 집필의 핵심인사로 활동하였으며, ‘제2차 동아일보 시대’에는 사설을 주로

13) 곽종원, 「새해에 病友들은 엇더하신가, 病友 金明植, 黃鈺, 玄相允 君을 찾고」, 『개벽』 제66호, 1926, 78쪽.

14) 고향에서 의흥학교를 다녔다는 기록도 있다. 허호준은 1993년과 2005년 글에서는 의흥학교를 다녔다고 했다가, 2011년 논문에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고 썼다.

15)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16) 김명식, 「筆禍와 論戰」, 『삼천리』 제6권 제11호, 1934, 32쪽.

썼다. 『조선지광』의 경우에는 직장이 아닌 주요 기고자로 활동하였고, 이후에 『삼천리』·『비판』·『동광』·『조광』 등의 매체에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 국제 정세, 국내의 경제, 조선 역사, 세태, 교육, 여성, 주역, 종교, 문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다.

김명식은 150편 넘는 글<sup>17)</sup>을 본명으로만 집필한 것이 아니라 송산(松山), 솔피, 나산(拏山), 파룡생(跛龍生) 등의 이름으로도 발표하였다. 송산은 그의 호(號)이며, 솔피는 송산을 고유어로 바꾼 것이고, 나산은 고향의 산인 한라산(漢拏山)에서 첫 글자를 뺀 것이다. 파룡생은 1937년 주역사상에 대한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sup>18)</sup>할 때의 필명이다. ‘절뚝발이 귀머거리’라는 뜻의 파룡생은 병마에 시달리던 당시 김명식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이름이다.<sup>19)</sup>

김명식은 몸이 원래 허약한 편이었던 데다가, 신생활사 필화사건으로 검거되어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수감 중이던 함흥형무소에서의 중노동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병환 속에 살았다. 함흥형무소에서 얻은 말라리아와 늑막염에 시달렸으며, 이후 장딴지 종기로 수술하고 나서 탈구(脫臼)되어 한 다리가 짧아지고 갈빗대를 두 치 이상 잘라내야 했

17)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376쪽 참조.

18) 김명식은 ‘跛龍生’이란 필명으로 「周易思想의 形而上形下論과 生死觀」을 1937년 10월에 『동아일보』 6회 연재했다. 이에 대해 안호상(安浩相)의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에 對한 批評(上中下)」(『동아일보』 1937.11.6·7·9)이란 비판이 실렸고, 김명식은 다시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동아일보』 1937년 11월 5회 연재)이란 반박문을 발표했으며, 안호상은 다시 「跛龍生의 周易解釋에 對한 批判」(『동아일보』 1937년 12월 3회 연재)이라는 재반론을 기고했다.

19) 곽종원, 앞의 글, 76쪽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가 왜 파룡생이란 필명을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땀수룩한 머리 혈금한 얼굴 엇갯든 病人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좌우 거드랑이에 맞쳐 집흔 쌍집팽이를 볼 때 한 다리(右足)가 짧버서 계다작을 맞쳐 신은 것을 볼 때에 누가 놀내지 안으랴. 그 뿐이냐. 좌우귀가 꼭 막켜 아무리 大聲高喊이라도 아러드지를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안탐가운 생각이 업스랴!”

고, 방광염으로 고생하던 중에 양쪽 고막까지 막히게 되었다.<sup>20)</sup> 이런 상황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평소에 바둑을 즐겼다는 사실<sup>21)</sup>도 불편한 몸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안이 별문이긴 했지만, 고향을 떠나 독립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경제적 형편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작성한 자료에도 “재산: 없음. 생계 곤란함”<sup>22)</sup>이라고 명기된 것을 보면 궁핍한 생활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광종원도 “生活現狀은 무를 것도 업시 極貧이겠다. 朴熙淑 氏 건너 방을 비러 잇스면서 친구들의 多少同情으로 살아가는 듯 한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某日報에 글을 쓰다가 그는 그만두고 某日報 某雜誌에 글을 써 주는데 그 亦 外상이라고. 귀가 막켜 가며 써 준 그것이나마 外상이라고 또 한번 꺾꺾 웃는다”<sup>23)</sup>라며 그의 병마 속 극빈 생활을 말하였다.

김명식의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항일운동가로서의 면모는 주로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다. 이 시기는 그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신생활』사에서 활동하던 때까지로, 나이로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에 해당된다.

김명식은 1915년(1916년이란 설도 있음)에 발족한 조선·중국·대만 3개국 청년들의 국제적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에 참여하여 1916년 4월에 신도래(新渡來)학생환영회에서 적국(敵國)에서 공부하는 의미는 정신을 강고히 해 장래 큰일을 할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20) 위의 글, 77-78쪽 참조. 김명식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병마에 시달리게 된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였고, 광종원은 “金君은 大正12년 2월 16일 『新生活』事件으로 朴熙道 辛日鎔 兪鎭熙 諸氏와 갖치 징역하는 몸이 되어 同4월에 咸興으로 移監되야 同6월에 獄中에서 병을 어더 가지고 同7월에 執行停止로 出監되야 伊來 2, 3년 치료에 아직 完人이 못되얏다.”(75쪽)고 언급하였다.

21) 운동과 오락에 대한 설문에 김명식은 “深呼吸運動하고 바둑을 즐깁니다.”라고 답하였다(『各界 人士들의 멘탈테스트』, 『동광』 제29호, 1931, 48쪽).

22)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23) 광종원, 앞의 글, 78쪽.



는가 하면, 1917년 여름에는 국내에서 독립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이 즈음 김명식은 재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도 깊이 참여하여 191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간사부장을 맡은 데 이어, 191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회장을 역임했다.<sup>24)</sup> 『학지광(學之光)』 편집도 이 시기에 맡았음은 물론이다.

1920년에 김명식은 조선노동공제회에 의사(평의원)로 참여하는가 하면, 전국적 차원의 청년운동조직이었던 조선청년연합회에 참여하여 기관지 『아성(我聲)』 간행을 맡기도 한다. 이 무렵 그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강연 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김명식은 1920년 6월 사회혁명당(社會革命黨) 발족을 주도하였다. 사회혁명당은 처음에 사회주의를 비롯한 신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독서회 성격의 단체였다가 1921년 5월 상해파 고려공산당 창당대회 참가를 계기로 고려공산당 국내지부로 전환되었다. 고려공산당은 공산주의 무산계급혁명단체인 한인사회당, 사회혁명당과 기타 여러 공산당·노동자 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때 김명식은 기관지 담당으로 선임되었다. 김명식을 비롯한 사회혁명당 세력은 주로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선전하였다. 당시 김명식은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1922년 1월의 ‘김윤식 사회장(社會葬)’과 1922년 4-6월의 ‘사기 공산당 사건’ 등을 거치면서 사회혁명당 세력은 와해되었다. 김명식은 1921년에 당을 탈퇴한 상태였으나, 사상투쟁의 중심에 있었다.<sup>25)</sup>

상해파 국내지부가 분열하면서 김명식은 유진희 등과 함께 ‘신생활사 그룹(상해좌파)’을 형성하였다. 『신생활』의 이사 겸 주필로 활동하던 그는 결국 1922년 말 필화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검거된다. 12월 26일 조선

24) 최선웅, 「1915-1922년 사회혁명당 세력의 활동과 이념」, 앞의 논문, 9-19쪽; 허호준,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404-406쪽.

25) 최선웅, 위의 논문, 29-61쪽.

최초의 사회주의자 공판이 열렸고 그는 2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김명식은 1927년 신간회 제주지부의 지회장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지만, 별다른 조직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sup>26)</sup>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문필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김명식은 1920년대 중반까지 사상운동과 항일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에 그는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었고 그에 대한 일제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행: 오만함. 치열한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산주의에 찬동하여 그 사상을 선전할 우려가 있음”<sup>27)</sup>이라는 기록은 그것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김명식의 치열성은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퇴색되기 시작한다. 「北中政權의 新形態—實質的 保護, 形式的 緩衝」(1935. 10)에서 보면, 만주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두고 객관적 분석을 하는 듯 하면서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sup>28)</sup> 그러나 아직 그는 「高句麗 考證」(1935.9), 「萬里長城까지 나갔던 高句麗」(1935.10), 「王儉 辨解」(1935.11) 등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議會政治와 獨裁政治」(1936.1)와 「獨裁政治와 議會政治」(1937.5)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자의 관점도 유지된다.

그런데 중일전쟁기에 쓴 글에서는 김명식의 논조가 확실히 달라진다. 「戰爭과 平和」(1938. 8)에서 그런 면모가 보이며, 「建設意識과 大陸進出」<sup>29)</sup>

26) 위의 논문, 62쪽;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앞의 글, 389-396쪽.

27)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김명식은 경기도 경찰부 관내 요시찰인 명부에 나와 있으며, 공산주의자인 ‘2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장신, 앞의 논문, 154·176쪽.

28) 『삼천리』 1935년 10월호에 수록된 이 글에서는 “赤化熱力を 방위하기 위한 日中滿 3國의 실제적 합작”(77쪽)이란 표현이 거부감 없이 기술되고 있다.

29) 잡지 목차에는 이 글 제목이 「亞細亞 改造論」으로 되어 있다.

(1939.1), 「戰時 朝鮮人 衣服 問題—우리 衣裳의 由來」(1940.3), 「‘氏制度’의 創設과 ‘鮮滿一如」(1940.3)에서는 친일적인 논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건설의식과 대륙진출」에서는 일본의 ‘신동아건설’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리 민족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화역(調和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시 조선인 의복 문제—우리 의상의 유래」에서는 “建元관계로 말미암아 寅力을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어 중국에서 들어온 백색의 상이 민중생활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백색 위주의 우리 의복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sup>30)</sup> 「‘씨제도’의 창설과 ‘선만일여’의 경우 창씨개명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한글運動과 파쇼 意識」(1938.1)에서의 논지도 한글맞춤법통일안 반대운동을 전개한 조선어학연구회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친일 활동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 『정음(正音)』지에 실린 글임은 그러한 면을 뒷받침한다.

김명식의 경우 중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의 지배적 위치와 그 현실적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그 지배이데올로기가 내포한 균열을 최대한 파고들면서 조선민족의 독자성과 생존의 논리를 모색”<sup>31)</sup>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동아질서 구상을 나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에 동의했지만, 그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동화될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친일담론을 온전히 내면화할 수는 없

30) 김명식이 제기한 우리 의복에 관한 문제는 일제의 ‘조선농촌진흥운동’(1932-1940)과 관계가 깊다. 이 운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자급자족,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호부조, 유색의복 착용, 천황에 대한 충성, 일장기 게양 등을 강조했다. 특히 유색의복 착용 운동은 초창기 진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면장과 면서기들은 장날마다 출동하여 흰옷 입은 사람에게 먹물을 넣은 물총을 쏘거나 공중변소 출입을 엄금하는 등 희극 같은 비극을 연출하기도 했다”(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31쪽)고 한다.

31) 서영인, 앞의 논문, 12쪽.

었”<sup>32)</sup>다고 할 수 있다. 김명식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음<sup>33)</sup>은 그에게 친일담론이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1940년 7월 이후로는 지면에서 그의 글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의 절필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인식과 당시의 시국에 대한 대응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sup>34)</sup>으로 볼 수 있다.

김명식의 전향과 절필의 과정은 그의 건강 문제와 생활고 등에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1923년 신생활사 사건 이후 계속해서 병마에 시달리던 그는 치료를 위해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재수감되는 불운까지 겪으면서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필 활동으로만 사회에 참여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던 그로서는 중일전쟁 이후 강고해진 일제의 지배에 자신의 신념을 시종여일하게 내세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점차 시세에 편승하는 글을 몇 편 쓰는 처지가 되었으나,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그런 글쓰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절필하게 된 와중에 자신의 전향에 대해 회한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나라를 찾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하지 말고 내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sup>35)</sup>는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Ⅲ. 김명식의 문학 세계

김명식은, 문학에 전념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문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배워서 한시 짓기에도 능하였고, 서울과 도쿄에 유학

32) 위의 논문, 17쪽.

33)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378쪽.

34) 서영인, 앞의 논문, 18쪽.

35)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앞의 글, 402쪽.

하여 신문학을 접하면서 시와 평론 등을 간간이 발표하였다. 그의 전체 글 가운데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다양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음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의 문학 활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은 『동아일보』 창간호(1920.4.1)에 시(詩) <새봄>과 <비는 노래>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새봄>의 전문이다.

大理가 動하다  
 孤叢가 破하다  
 霜雪이 갖다  
 堅氷이 풀렸다  
 막힌 샘이 흘르고  
 붉은 산이 푸루다  
 아— 봄이로구나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어대에 어대에  
 어듬에 權域에  
 魔鬼도 가고 사탄도 가고  
 파리새도 가다  
 일기가 싸시고  
 바람이 가부엌다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난다  
 저 無窮花 고흔 꽃에  
 나비가 안는다  
 꽃송이 속에 입부리를  
 곱히 곱히 찢넛다  
 두 날개를 너울너울  
 꽃 種子를 날린다  
 黃金도 名譽도  
 權力도 업다

저 꽃에 저 나비에  
 다만 뜨거운 사랑의 結晶뿐이다  
 아— 黃金의 無用 권력의 敗北  
 情의 世界 사랑의 勝利  
 아— 사랑 아— 사랑  
 새봄의 새 사랑<sup>36)</sup>

창간을 축하하는 작품답게 힘찬 어조가 느껴지는 이 시는 “당시 발표되던 다른 시인들의 시에 비해 시적 성취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sup>37)</sup> 것으로 평가된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기뻐하며 새로운 사랑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겨울로 상징되는 어려운 시절에서 벗어나 봄으로 상징되는 밝은 세계가 도래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sup>38)</sup>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봄(밝은 세계)이 지금 도래했음을 기뻐한다기보다는 진정한 봄을 염원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본다. 그런 진정한 봄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포착할 수 있다. “봄의 정경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봄과 현실의 관계를 암시하는 측면”<sup>39)</sup>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 작품 후반부의 ‘황금’과 ‘권력’은 ‘자본’과 ‘일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시가 발표된 1920년 당시 사회주의자요 항일운동가로 활동하던 김명식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니 굳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sup>40)</sup>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은 창간 축시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비는 노래>이다. 『동아일보』 창간을 감격적으로 노래하면서, 이 신문이 참된 언론

36) 표기는 원문대로 두고 띄어쓰기만 현행 맞춤법을 따랐다. 이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37)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앞의 책, 48쪽.  
 38) 김영화, 앞의 책, 83-84쪽.  
 39)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앞의 책, 48쪽.  
 40) 위의 책, 48쪽.

으로서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始祖朱蒙 열린 짜에  
天授帝가 지은 이름  
山高水麗 장할시구  
檀木에 움이 나고  
槿花가 새로 필 새  
東亞日報 誕降하다  
永樂帝의 抱負이며  
乙支公의 精神이며  
元曉의 慈悲이며  
王仁의 文化이며  
徐熙의 勇猛이며  
蓋蘇文의 氣概이며  
申崇謙의 魂魄이며  
成三問의 口舌이라  
소리소리 正義이며  
말말이 人道로다  
南海는 깊고 깊고  
白頭는 높고 높다  
東半島 萬年紙에  
漢陽平原 벼루 삼고  
漢江은 硯水 삼고  
南山은 먹을 삼고  
松柏은 붓을 매고  
檀木갓치 구들 썬와  
槿花갓치 고흔 고기  
薛聰의 지은 말로  
世宗의 만든 글로  
金生의 체를 밧아  
無窮無盡 써어내어  
南海갓치 곱흔 내용

白頭갓치 높히 들어  
疾風惡雨 怯치 않고  
與天同壽 하오리라

“형식은 개화가사의 수준이지만 정신은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을 담고 있”<sup>41)</sup>는 작품이다. 김명식의 민족의식이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정의(正意)와 인도(人道)를 구현하는 신문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인식과 더불어 장대한 기상과 굳건한 의지가 분명히 표출된 작품이다. 특히 후반부의 ‘東半島 萬年紙에/漢陽平原 벼루 삼고/漢江은 硯水 삼고/南山은 먹을 삼고/松柏은 붓을 매고’와 같은 비유들을 보면, 김명식의 스케일이 매우 컸음이 감지된다.

「孫義庵의 長逝를 弔하노라」(1922.7)는 의암 손병희(孫秉熙; 1861-1922)의 별세에 즈음하여 김명식이 쓴 조사(弔辭) 성격의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은 아래와 같은 조시(弔詩)로 마무리된다.

貧賤코 窮困타가  
富貴豪奢 누렸세라  
安樂한 그 生活이  
個人으로 成功일세  
그러나 世人의  
毀譽이야 가실 줄이 잇스리

富貴로 煩悶하고  
豪奢에서 犧牲했다  
犧牲의 조흔 事業  
그 毀譽를 定하다니

---

41) 김영화, 앞의 책, 85쪽.



알게라 人生事爲는  
一朝인가 하노라

뜻 두고 못 일우니  
끼친 恨이 千秋로다  
閑山島 넷 달빛이  
牛耳洞에 새롭다니  
슬푸다 風雨는 퍼붓는데  
늪를 잡고 갖치 가리<sup>42)</sup>

“噫噫라, 先生의 逝이여! 우리 社會에 一大損失이로다. 北風이 吹하고 雨雪이 降하노니 手를 携하여 同히 歸할 者 그 誰이뇨? 噫噫라, 先生의 逝이여! 우리 社會에 一大損失이로다”<sup>43)</sup>라는 문장 다음에 바로 위의 시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대의를 위해 노력한 고인의 뜻을 추어올리면서 고인이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한 슬픔을 잘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각 연이 6행으로 되어 있지만, 4음보격 3장 3연의 시조(時調)로 보는 게 타당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시조(聯時調)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화시조 이후에, 아직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발표된 시조인 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20년대 초에 발표된 시조문학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주사람으로서 쓴 최초의 시조작품이라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명식의 문학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작품은 한시(漢詩)다. 그는 도쿄 유학시절부터 지면에 한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학지광』에 발표한 한시는 <客中懷秋>(2수)·<春日偶吟>·<別江戶有感> 등이 있다. 다음은 20대 중반에 쓴 <객중회추>라는 작품이다.

42) 『신생활』 제7호, 1922, 112-113쪽.

43) 위의 책, 112쪽.

窮秋十五月明時      늦가을 보름달 밝은 밤에  
 坐聽海濤定一期      앉아서 밀려드는 파도소리 듣노라니  
 警鐸高聲催曉箭      처마의 풍경소리 새벽을 재촉하고  
 白酒未熟行遲遲      덜 익은 막걸리에 걸음은 더디어지네.

庭前黃菊兩三開      마당에 노란 국화 두세 송이 피었으니  
 凜烈寒風來日來      매서운 겨울바람 내일이면 불어와  
 葉落故園空寂寞      낙엽 진 옛 동산 텅 비어 적막해져도  
 四時有序有春回<sup>44)</sup>      사계절 차례대로 봄은 돌아오겠지.

타국에 머물고 있는 젊은이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그려져 있다. 쓸쓸한 가을 분위기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 고향(고국)에 돌아가고픈 심경이 펍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봄날에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어낸 아래의 <춘일우음>에도 향수(鄉愁)가 느껴진다.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지만, 그리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年年芳草來空山      해마다 향기로운 풀은 텅 빈 산에 돌아오는데  
 古木春風何日遷      고목에 봄바람은 언제면 돌아올는지  
 有時歌笑腸寸斷      때로 노래와 웃음소리 뱃속에 토막토막 있길  
 但禱神明夢寢間<sup>45)</sup>      다만 천지신명께 꿈속에서 기원하네.

강변 집에서 이별하는 느낌을 쓴 <별강호유감>은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과 심사를 읊은 작품이 아니다. 관념적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시의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義氣青袍出世間      정의로운 기개로 벼슬하여 세상에 나갔는데  
 黃河百戰無自閒      황하에는 술한 싸움으로 한가한 날 없으니

44) 『학지광』 제11호, 1916, 39쪽. 뒤의 1수는 ‘又’라고 명기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45) 『학지광』 제13호, 1917, 80쪽.

留期他日風雲定 머무를 기약일량은 훗날 풍운(風雲)에 정해진 것  
萬歲山呼解甲還<sup>46)</sup> 임금님 만세 외치며 갑옷 벗고 돌아오리다.

「나의 回想記, 大阪 八年間 放浪記」(1938.1)에는 김명식의 오사카 생활<sup>47)</sup>과 관련된 두 편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한시들은 김명식의 행적을 드러내면서 관념성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그 가운데 한 편인, <於大阪贈某友>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작품이다. 오사카에서 서울의 어느 친구에게 써서 보냈다는 한시다.<sup>48)</sup>

跋□十有三四年    절뚝거리며 지내온 십삼사 년 세월  
酸苦源多胡不歸    술한 괴로움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追憶寺中□酒盡    절 생활 떠올리며 마시던 술 다하여  
□省爵裡梅花開    술잔을 살펴보니 매화가 피었는데  
三國干戈皆北進    삼국의 창과 방패 모두 북녘 향하였고  
六洲風雨自東來    육대주의 비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니  
一亡一興那無道    망하고 흥하는 데 어찌 도(道)가 없겠는가?  
但祈新春君一杯<sup>49)</sup>    다만 올봄에 그대와 한잔 술을 기원해보네.

46) 『학지광』 제17호, 1918, 77쪽.

47) 김명식은 오사카로 건너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京城을 떠나서 고향을 거쳐서 10년 전에 大阪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大阪의 浪人됨과 함께 나는 다소 긴장함으로 또 한쪽으로는 어떠한 요행도 기도하였다. 그 요행이란 물론 내 개인의 일이었는데 여러해동안 병과 가난으로 괴롭게 지내던 나는 大阪에서 기술이 능한 의사를 만나서 병을 낫치고 또 고향 사람들이 만이 있는 곳에서 불구자의 여생을 가만이 보내 보겠다는 생각이였다”(김명식, 「나의 回想記, 大阪八年間放浪記」, 『삼천리』 제10권 제1호, 1938, 19쪽)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다.

48) “나는 在滿朝鮮人 문제를 가지고 故土에 계신 몇 분 친구와 논란한 일이 있는데 우리도 우연만치 흥분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日露支 3국관계가 극히 험악해진 때 나는 京城 某友에게 다음과 같은 偶感을 써 보낸 일이 있다. 그리고 나의 예언의 뜻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제 日支事變이 전국적으로 마춤내 확대된 것을 보면서 스스로 감개가 새로워진다.”(위의 글, 21쪽)

49) 위의 글, 21쪽.(□'는 판독이 어려운 글자임.)

국제정세와 관련된 사항을 한시로 읊어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일본·러시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던 1930년대 초반에 쓴 작품인바, 김명식의 시국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몇 년 전의 자작 한시를 떠올리는 가운데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을 지켜 보면서 동북아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는 김명식의 모습이 그려진다.

「나의 회상기, 대판 팔년간 방랑기」에 실린 다른 한 편의 한시는 동향의 친구인 김문준(金文準; 1893-1936)의 장례식을 오사카에서 치른 후 귀향명령을 받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읊은 작품이다.<sup>50)</sup> 이 한시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官人送我今歸鄉	관인(官人)이 나를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니
心氣如麻望□山	거친 삼베같이 어지러운 마음에 ○○산을 바라보네.
逃世異鄉風塵袍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생하던 선비가
寄身片葉滄渡間	조각배에 몸을 맡겨 바다를 건너고 있으니
項王不聽渡江去	항우(項羽)가 강을 건너갔던 일을 듣지 못했는가?
遊子胡爲涉海還	배우러 갔던 내가 어찌 바다를 건너 돌아가는지
破笠弊衣形似影	갓은 찢기고 옷은 헤어져 형상이 그림자 같으니
拜親對妻爾無顏 <sup>51)</sup>	부모님과 아내를 볼 면목이 없구나.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준은 1936년 5월 22일 오사카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명식은 그의 추도회 때 추도사를 읽었다가 강제 귀향 조치되었다.<sup>52)</sup>

50) “民衆時報 主幹 金文準 군은 나와 죽마교우로서 절친간인데, 그의 총명과 才分은 범상한 자가 아니오, 또 大阪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이 하얏다. 그럼으로 저의 죽음과 가티 나에게 큰 타격은 업섯다. 그리하여 저의 추도회 時에 나온 저의 靈 암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컨 울렀다. 그런데 그 까닭인지는 알 수 업스나 그 5, 6일 후에 오라 하야 하로밤을 그곳에 잇다가 귀향을 명령한다. 재작년 일이다. 그리하여 船頭에 이르렀는데 某 友로부터(畧) 승선하얏다. 그리고 船中에서 和答을 請하는 친구가 잇서 이러케 올뻘다.”(위의 글, 45쪽)

51) 위의 글, 45쪽.

52)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앞의 논문, 383-384쪽.

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조선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온갖 감회에 젖어든 김명식의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깊은 회한이 느껴진다. 초라한 물골로 귀항하게 되어 착잡하기 그지없다. 고향의 부모와 아내에게 죄스러움을 느끼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작품이다.

김명식은 이밖에도 『동아일보』에 <病床咏>(1924.11.3), <貧民恨>·<弔朱門>(1924.11.13), 『조선중앙일보』에 <千里駒 兄께>(1934.1.23) 등의 한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한시를 지면에 소개하는 일도 하였다.

문학평론으로서 의미를 갖는 김명식의 글로는 <露西亞의 산 文學>(1922.4)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추후 『삼천리』 1930년 7월호에 ‘名文의 香味’ 아래 수록한 6편의 글 중 1편으로 발췌 게재되기도 하였을 만큼 당대에 좋은 글로 꼽혔다.

이 글은 김명식의 사회주의 문학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과거에 세계 각국 가운데 가장 문화가 뒤졌던 러시아가 당대(192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가장 앞선 듯하다면서 “共產經濟와 委員政治”에 그 요인을 찾고 그것이 “世界人類가 總히 理想하는 바 制度”<sup>53)</sup>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문화가 빠르게 세계의 선봉이 된 것은 역사적 진화만이 아니라 문학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김명식은 이 글에서 “文으로써 美와 巧를 다하여 잘 꾸며내는 것이 文學”이라고 생각하는 현실과 “文學의 內容은 大概 詠物敘情하는 것이 그 重要한 職分”이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조선 사회에서는 “文學이라 하면 보드러운 것이오 아르자운 것으로 알고 文學者이라 하면 軟한 者이오 弱한 者이라고 認定하게 되얏”<sup>54)</sup>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문학은 다르다고 김명식은 말하였다.

53) 김명식, <露西亞의 산 文學>, 『신생활』 3호, 1922, 4쪽.

54) 위의 글, 5쪽.

(…) 露西亞의 文學은 甚히 強하얏스며 文學者는 甚히 激하얏슴이다. 그리하여 文學을 作하면 文學의 文學을 作치 아니하고 思想의 文學을 作하얏스며, 美와 巧의 文學을 作치 아니하고 正과 義의 文學을 作하얏스며, 和와 閑의 文學을 作치 아니하고 鬪와 怒의 文學을 作하얏스며, 個人의 敘情을 主로 하지 아니하고 民衆의 感情을 主로 하얏스며, 詠物을 主로 하지 아니하고 人生의 實生活을 主로 하얏스며 弱者의 哀願을 主로 하지 아니하고 强者의 詆罵를 主로 하얏슴이다. 과연 露西亞의 文學은 死文學이 아니오 生文學이엿슴이다. 다른 國家의 歷史에서 일즉 보지 못한 文學이엿슴이다. 感情이 激하면 그 激한 感情을 그대로 記錄한 文學이며 民衆이 苦痛하면 그 苦痛하는 事實을 그대로 記錄한 文學이며 强者가 橫暴하면 그 橫暴를 그대로 記錄한 文學이며 人類의 理想이 무엇이면 그 理想을 그대로 吐出하고 時代의 壓力과 周圍의 威脅을 조금도 畏憚치 아니한 文學이외다.<sup>55)</sup>

김명식이 볼 때 러시아 문학은 사상의 문학, 정(正)과 의(義)의 문학, 투(鬪)와 노(怒)의 문학, 민중의 감정을 위주로 인생의 실생활을 다룬 문학, 강자를 꾸짖어 욕하는 문학이었기에 죽은 문학이 아닌 ‘산 문학[生文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露西亞의 文學者라 하면 總히 民衆의 친구”<sup>56)</sup>라면서 투르게네프·도스토예프스키·톨스토이·고리키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당시의 러시아 문인과 사상가들은 “徹頭徹尾하고 人類的 意識의 우에 서서 民衆의 精神 가운데에서 生活”하였다면서 “저들의 主張과 創作으로 말미암아 露西亞 民衆은 人類的 意識과 民衆의 精神을 煥然히 覺醒하게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도 오로지 이 의식과 정신 위에 건설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이것이 구체적 형식을 이룸에 이르러서 “社會民主黨, 社會革命黨이 成立이 되야 一九〇五年의 革命이 잇섯스며 또 革命이 一九一七년에 爆發이 되야 今日의 露西亞 卽 共產經濟·委員政治의 露西亞를 産하얏”<sup>57)</sup>

55) 위의 글, 5-6쪽.

56) 위의 글, 7쪽.

57) 위의 글, 11쪽.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조선의 문학적 현실을 말하였다.

우리 社會에도 이러한 文學이 잇스며 이러한 文學者가 잇는가? 나는 업다고 敢히 斷定함이다. 近來에 流行하는 小說도 잇고 歌曲도 잇고 詩도 잇고 그 外에 다른 文學的 作品도 잇는 듯하며 이러한 作者도 잇는 가 함이다. 그러나 나는 아즉까지 朝鮮人의 참 生活를 써내인 것을 보지 못하얏스며 朝鮮人의 奧底에서 흐르는 感情을 그대로 그린 것을 보지 못하얏슴이다. 人類의 意識을, 民衆의 精神을 말한 것을 보지 못하얏슴이다. 民衆에게로 가는 文士를, 民衆의 苦痛을 自己의 苦痛으로 아는 文士를 보지 못하얏슴이다.<sup>58)</sup>

그는 문사들이 러시아를 배워서 민중에게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美를 꾸미는 것보다 熱을 먼저 發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民衆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sup>59)</sup>임을 역설하였다. 결국 그가 이 글에서 러시아의 살아 있는 문학을 추어올리면서 대표 작가 4명의 삶과 문학을 소개한 이유는 자명하다. 조선의 문학과 문학인이 바로 그러한 문학을 전개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직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은 물론이요 염군사(焰群社)와 파스쿨라(PASKYULA)도 결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활성화를 선구적으로 촉구하였다는 데 이 평론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戰爭과 文學>(1938.4)은 김명식의 기존 관점과 변모해가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평론이다. 앞부분의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논의에서는 휴머니즘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연주의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을 ‘음만(淫漫)한 문학’으로 폄하함으로써 종래의 사회주의적 문학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文學的 個人主義를 徹底히 揚棄함으로써 新文學 建設의 第一步를 삼어야” 한다거나 “飢寒이 到骨한 大衆에게 보드라운 文學이 무슨 慰安과 生氣를 喚起

58) 위의 글, 12쪽.

59) 위의 글, 12쪽.

할 것이며 또 嚴肅한 現實에 있어서 浪漫的, 獵奇的 物語가 不自然, 不合理한 現狀을 匡正함에 무슨 理論的, 實踐的 圖案을 提示할 것이냐”<sup>60)</sup>고 반문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다른 면모는 “國民皆兵制度가 實行되고 있는 現代”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시국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제 自身이 直接 戰爭을 體驗한 者이라야 그 表現이 深刻하고 또 內容이 充實하여 보다 큰 文學的 價値를 創造할 수 있는 것”<sup>61)</sup>이라며 전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感情的 觀察로는 事物의 全體性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戰爭과 가튼 大問題에 對하여 感傷만 組織한 文學은 그 內容과 技巧의 如何함을 莫論하고 一定한 意識의 學的 體系를 가질 수 없는 俗物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sup>62)</sup>

(…) 戰爭文學의 意識은 (…) 死 以上の 것을 爲하여 언제나 死를 覺悟하고 그리하여 斷然코 死를 實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만일 戰爭 問題에 있어서 死의 問題를 除外한다면 그것은 스포츠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럼으로 死를 覺悟하고 또 그를 實踐하는 犧牲의 精神이 流露치 않는 戰爭文學은 스포츠文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sup>63)</sup>

그렇다면 당시 조선인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조선인에게 전쟁을 체험하라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실천하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일본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김명식의 전향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일찍이 「戰爭哲學의 批判」(1922.8)<sup>64)</sup>에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군국주의의 최후를 보아

60) 김명식, <戰爭과 文學>, 『삼천리문학』 2호, 1938, 103쪽.

61) 위의 글, 98쪽.

62) 위의 글, 102쪽.

63) 위의 글, 100쪽.

64) 이 글은 『신생활』 제7호와 제8호에 게재되었다. 7회의 필명은 ‘김명식’, 8회의 필



야 인류가 전쟁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던 주장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戀愛와 時代思潮—나의 素人的 戀愛觀>(1939.6)도 <전쟁과 문학>과 마찬가지로 김명식의 두 가지 면모가 함께 확인되는 글이다. 모더니즘과 연문학(軟文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확인되는 한편, 전향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이는 부분도 확인된다. ‘국가 사회의 비상시대’라거나 ‘시국 문체’·‘시국 관계’·‘시국 여하(如何)’ 등의 언급을 자주 하고 있음도 그렇고, 지나치게 계몽적인 태도도 그런 면을 뒷받침해 준다. 실천적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는 193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는 상당히 퇴색되어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설낭탕의 頌>(1922.4)은 의미 있는 수필로 읽힌다. 김명식은 이 글에서 조선 민중의 어려운 생활을 말하면서, 설렁탕이야말로 그런 처지의 민중들을 구제해 주는 음식이라고 칭송한다.

저들은 三百六十日에 하르도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일이 업스면 모르되 잇기곳 하면 조곰도 놀지 아니하고 일합니다. 그러하나 저들의 버을이는 만흔 날이라야 하로 一圓이오, 적은 날은 하로 四五錢막게 되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이러한 收入을 가지고 그 妻도 그 子女도 살립니다. 그러닛가 무삼 餘裕가 잇스며 무삼 貯蓄이 잇겠습잇가. 그날 버으리가 그날 사는 材料도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온대 病魔의 襲擊은 무엇으로 막으며 子女의 教育은 무엇으로 식히겠습잇가. 더구나 昨年 갓흔 치위를 만나면 그 무엇으로써 살 것임 닛가. 저 慈善團體에 의뢰할 것이며 저 救濟機關에 囑望할 것임잇가?<sup>65)</sup>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조선 민중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생계가 위협받다 보니 치병도 못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 추운 겨울이 되면 민중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

명은 ‘나산’이었다.

65) 김명식, <설낭탕의 頌>, 『신생활』 4호, 1922, 2쪽. 이 글의 필명은 ‘솔피’다.

자선단체나 구제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때 그나마 위안을 주는 음식이 설령탕이라고 김명식은 말한다.

五十錢의 功效가 偉大도 하외다. 어렸던 코곳에서 방울쌈이 흐름입다. 드러갔던 눈이 나옴이다. 허리가 이려서고 손이 떼어짐이다. 치운 창자에 서리고 잇던 蛔가 소물거리고 가는 피줄기가 굴겨짐이다. 곱흔 배가 불너지고 치운 몸이 짜뜻하야짐이다. 아- 이제는 저들이 살았습니다. 우숨이 나오고 괴운도 남니다. 그리하야 저들은 昨年の 치위에 살았습니다. 再昨년도 살고 再再昨년도 살았습니다. 또 明年에도 來後年에도 이것으로 살 것이외다.<sup>66)</sup>

설령탕이 겨울철 조선의 민중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음식인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 다소 해학적으로 묘사된 위의 인용문은, 설령탕 한 그릇을 통해서 민중들이 겪는 애환의 실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민중들의 절박함이 매우 효과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아- 설녕탕의 은혜, 설녕이라는 말은 무삼 뜻인지 나는 알고져 하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나 그 뜻이 만 사람을 살린다는 것임은 疑心 업는 일인 듯 하외다. 그럼으로 나는 설녕탕을 慈善湯, 救濟湯이라 하고 씁습니다. 그러하나 이 말삼은 傳習 思想의 詐欺的인 듯 弄絡的인 듯 虛僞인 듯 瞞着인 듯 합니다. 그럼으로 나는 平民湯이라, 大衆湯이라 하겟습니다. 이보담도 活湯이라 하겟습니다. 平民을, 民衆을, 大衆을 살리는 湯이라 하야 活湯이라 하겟습니다.<sup>67)</sup>

설령탕에 대해 ‘자선탕’·‘구제탕’이면서 ‘평민탕’·‘대중탕’이요, 나아가 민중을 살리는 음식 즉 ‘활탕(活湯)’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배고프고, 춥고, 병든 사람들이 기껏해야 설령탕에 기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탄식한다. 순간의 위안으로 갖은 고통을 감내하는 암울한

66) 위의 글, 2-3쪽.

67) 위의 글, 3쪽.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너의 강한 목적은 다만 설낭탕의 신세만 지고 마는고나. 아- 大衆이여”<sup>68)</sup>라는 마지막 부분은 결국 현실 안주의 자세를 넘어서야 하는 당위성을 던지시 암시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각성이 있어야만 설렁탕으로써 순간적 위안을 삼는 절망적인 상황이 근본적·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로서의 김명식의 면모가 저변에서 감지되는 수필이라고 하겠다.

#### IV. 맺음말

제주도 출신인 송산 김명식은 조직 활동가이자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생애와 활동을 먼저 정리하고서 그의 사상과 관련시키면서 문학세계를 분석하였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식이 지닌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항일운동가로서의 면모는 주로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다. 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핵심 구성원이었고, 신아동맹당,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 국내지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했으며, 『동아일보』 논설기자, 『신생활』 주필 등을 역임하며 논객이자 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1923년 ‘신생활사 사건’으로 옥살이하는 것을 계기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별다른 조직 활동을 못하는 가운데 문필 활동만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 조선 역사, 세태, 교육, 여성, 주역, 종교, 문예 등 다양한 글을 발표했다. 그는 중일전쟁기에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여러 편 발표하면서 친일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친일담론이 내면화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68) 위의 글, 3쪽.

김명식의 문학은 『동아일보』 창간축시로 발표한 <새봄>·<비는 노래>, 손병희의 별세에 즈음하여 조시로 쓴 연시조, <객중회추> 등의 한시, <로서아의 산 문학>·<전쟁과 문학> 등의 평론, <설낭당의 송> 등의 수필이 있다. 이 가운데 「새봄」은 자본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며, 조시는 1920년대 초반의 시조문학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로서아의 산 문학>은 아직 카프(KAPF)가 결성되기 전의 시점에서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활성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설낭당의 송>도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저변에 깔려 있는 수필이다.

이상에서 볼 때 김명식은 사회주의 조직 활동가이자 사상가로서만이 아니라 문학인으로서도 충분히 조명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시·시조·평론·수필 등에 대해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의 흐름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카프 결성 이전 계급문학 초창기에서 김명식 평론의 위상은 좀 더 분명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제주도 출신인로서는 드물게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사라는 점에서 김명식은 제주문학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명식의 생애보다는 문학을 구명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그의 생애에서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거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그의 문학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다소 평면적인 고찰에 머무른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그동안 검토되지 않은 자료까지 발굴·활용하여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위상을 재평가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자료

『개벽』, 『공제』, 『동광』, 『별건곤』, 『비판』, 『삼천리』, 『삼천리문학』, 『신생활』, 『아성』, 『정음』, 『조광』, 『조선지광』, 『학지광』 등의 잡지·기관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의 신문.

『왜정시대인물사료』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 - 논저·기타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봉옥, 「김명식 기고문 ‘제1차 대전 후 세계사’ 해제」, 『제주도사연구』6, 제주도사연구회, 1997.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박종린, 「꺼지지 않은 불꽃, 송산 김명식」, 『진보평론』 제2호, 1999, 359-367쪽.

박종린, 「김윤식 사회장 파동」,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2)』, 역사비평사, 2009, 56-63쪽.

박찬승,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서영인, 「일제말기 전향자들의 시국인식과 문화론—김명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1집, 대구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008, 1-22쪽.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 문학 연구』, 새문사, 1991.

- 이현주, 「국내 임시정부 수립운동과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1999.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 장 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11, 역사문제연구소, 2003, 143-177쪽.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문학-1900-1949』, 1995.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 조남현, 『한국 문학잡지 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16-36쪽.
- 최선웅, 「1915-1922년 사회혁명당 세력의 활동과 이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최선웅, 「1910년대 재일유학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375-408쪽.
-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26호, 고려사학회, 2007, 285-317쪽.
- 허호준, 「시대를 앞서 산 언론인 김명식」, 『제주저널』 창간호,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 1993, 222-235쪽.
-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2005, 375-402쪽.
-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375-411쪽.
- 홍종욱,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Abstracts>

## Kim Myeong-sik's Life and Literature

Kim, Dong-Yun

Kim Myeong-sik (1891-1943) who hailed from Jeju Island was a organized activist and socialist activist. He also attained reputation as a journalist and a writer.

His activities as a socialist and anti-Japanese movement activist had been prominent between the mid 1910s and the mid 1920s. He was a key member of Joseon Students Friendship Association, and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New Asian Alliance Party, the Socialist Revolutionary Party, and the Korea Communist Party. He also led an active life as an editorial writer of the Dong-A Daily and the New Life.

However, in 1923, a New Life Publish Company event put him in jail. After that, his health deteriorated and stopped doing organised activities. He took part in social activities by concentrating only on writing. He published, through many media, a variety of writings on socialism ideology, international situations, 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y, the history of Joseon, social conditions, education, female, the Book of Changes, religion, art and literature. Although he showed a sign of a converted socialist by publishing several writings cooperating with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he stopped short of internalizing the discourse of Japanophilism

Kim Myeong-sik's literary works include *Early Spring and Rain is*

a *Song* (1920) published as congratulatory poems for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Dong-A Daily, a condolence poem (1922), a kind of *Yeonsijo*, for the death of Son Byung-hee, critiques such as *Russia's Living Literature* (1922) and *War and Literature* (1938) and an essay *A Praise for Sullungtang* (1922). Of these literary works, Early Spring shows resistance against capital and Japan and the condolence poem shows the aspect of *Sijo* literature in the early 1920s. *Russia's Living Literature* draws attention in that it called upon the activation of proletarian literature even before KAPF was organized. Kim Myeong-sik left his footprints in the history of Jeju literature in that he had led a variety of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ntrol, which is rare for writers from Jeju Island.

Key Words : Kim Myeong-sik, socialist, writer, conversion, *Early Spring*, *Russia's Living Literature*, Jeju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 확정 : 2013년 4월 4일